

신년사

존경하는 고흥군민 여러분!

코로나19 확산과 경제 불황으로 많이 지치고 힘들었던 2021년을 견뎌 내고, 2022년 임인년 “호랑이의 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호랑이 기운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며, 코로나19가 잠잠해져서 일상이 회복되고 경기가 살아날 수 있기를 기원해 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변함없는 신뢰와 힘찬 응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올 한 해도 절박함으로 무장하여 민생과 경제 회복을 최우선으로 삼아 최선을 다해 의정 활동을 펼칠 것을 약속드립니다.

새해에는 우선, 코로나19 방역과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의 어려움 속에서도 방역 수칙이 허락하는 한 현장에서 발로 뛰며 군민의 목소리를 듣는 현장 중심의 의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지원 방역체제 구축과 재난관리기금, 소상공인 지원 등의 예산이 적기에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살필 것이며,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올해에도 열심히 연구하고 일하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지방행정은 점차 다양해지고 전문화되어 의정 활동에 대한 역량 강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군민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현안에 대한 합리적이고 현명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창의적이고 진취적으로 공부하고 연구하여 준비된 의회, 연구하는 의회, 일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풍경초(疾風勁草)의 자세로 마지막까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열리는 해입니다. 우리 고흥군의회의원 모두는 임기 마지막까지 의원으로서의 본분을 잊지 않고 군민 여러분과의 약속을 다하기 위하여 끝까지 의정활동에 전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더 새로운 고흥군으로 나아가는 길에 군민 여러분께서 마음을 함께 모아주시고 동행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지난해 코로나19로 군민들이 너무 힘든 시기를 보낸 만큼, 올해에는 웃는 날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하고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고흥군의회 의장 **송영현**